불자 세상보기

통큰치킨과 소비자운동



전승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2010년은 기업형 수퍼마켓, 이마트 피자, 롯데마트 통큰치킨 등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대기업과 중소자영업의 상생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1년이었다. 이 논쟁과 관련하여 어떤 이는 대기업의 치킨이나 피자 판매가 전체적인 시장가격의 하락을 가져와 소비자 가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반면에 대기업이 자본의 힘을 앞세워 중소자영업자들의 전통적인 사업영역까지 진출하는 것은 사회전체적인 측면에서 상생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논쟁이 증폭되면서 국회도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및 '상생협력촉진법'을 통과시켰다. 필자도 국제 무역관계에서도 자국의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제도가 있듯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최소한의 생존의 붕괴를 막아줄 법안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규제법안들이 상생의 필수조건이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한다.

이해 당사자들은 시장자본주의 원칙 또는 강력한 규제법안 마련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상생을 위해 대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소비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우선 대기업의 경우, 사업이나 품목을 확장할 때, 단기적인 매출 증대만이 아닌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브랜드 가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브랜드 가치가 기업의 성패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은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광고나 홍보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당한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킨 이마트 피자는 '이마트' 브랜드에 혹시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 필자는 충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롯데마트는 '통큰치킨' 판매 개시 얼마 후, 사회에서 여러 비판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자 바로 이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선언하였다. 회사 측에서는 아마도 '통큰치킨' 판매로 인한 롯데마트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염려했을 것이다. 대기업이 브랜드 가치 증진을 위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중소자영업자의 경우도, 자신의 생존을 규제 법안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과 품목을 선정하여 대기업 진출을 자제시키고자 하지만, 법안으로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는 불가능하다.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소비자 가치들의 전부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대기업이 제공하지 못하는 소비자 가치를 포착하고 개발시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의 특수한 목적에 맞춘 개인화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역생산자조합이나 지역화폐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소비하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중심 소비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서 자영업자 스스로가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다양한 지역문제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에 기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은 재래시장, 동네 수퍼, 동네 카페와 같은 지역상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대기업에서 피자나 치킨까지 판매한다고 비판하면서,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대기업 프랜차이즈만 이용하는 것은 분명히 모순된 소비행위이다. 이는 마치 환경보호를 외치면서 편리를 이유로 일회용 컵과 접시만 사용하는 것과 같다. 최근 지역과 환경을 중시하는 '착한 소비' 또는 '지속가능한 소비'가 새로운 소비자 운동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는 과거 온 국민 모두가 동참한 국산품애용운동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다. 이 운동은 국내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제 소비자들은 지역자영업자 애용운동을 벌여야 할 시기이다. 소비자들이 이런 운동이라도 벌여 대기업과 자영업자 모두가 상생하는데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사부대중 칼럼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랴



도각 스님
前 태고종 종무조정실장
자연치유학 박사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학습을 하면서 그 학습의 기억들과 새로이 접하는 상황들을 잘 조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다.

내가 잊을 수 없는 학창시절 기억들 중 나의 사고와 일상생활 속에 가장 깊숙이 젖어 들어온 몇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중학시절 MRA경북(대구 포함) 지도자였던 유모 선생의 "약지로 상대방을 지적할 때, 아래 세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알라"는 연설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 1년 때, 불교관련 서적으로 처음 구입하여 읽은 〈선가귀감〉의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는가(誰怨誰咎)"라는 어귀이다. 이 둘을 지금도 잊지 않고 나의 멘토(Mentor)로 삼고 있다.

불교수행의 목표는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인연이라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각자 자신의 알 수 없는 무명업연이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회전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아져서 점점 더 흡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업연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수행정진으로 득력을 얻는 것이다. 득력을 얻어서 깨달으면 마침내 영혼의 휴식인 해탈의 경지, 즉 유여의 열반(有餘依 涅槃)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무여의 열반(無餘依 涅槃)에 들기 때문에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가 있는 붓다(Buddha)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나무 그늘에 모여서 명상수행을 하다가 깨달으면 붓다가 되고, 붓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여 집단이 형성됐다.

이런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집단을 이끌기 위해 야전사령부격인 출가승단과 후방지원부격인 재가불자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출발된 불교의 수행모습이 오늘에 와서는 많이 변화됐다. 출가승단은 수행에 전념해 깨침을 구하려는 노력보다 법을 구하고자 하는데, 멀리 모든 성인에게 미루고 부처를 이루고자 하면서, 마음을 살펴 관하지 않는다. 마치 깨달음을 전매특허 받은 것처럼 권위체가 돼가고 있다.

태고종도 마찬가지이다. 총무원 권한이 점차 비대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중앙종회의 권한 또한 막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그 운영주체인 승단도 당연히 사회변화를 이끌어 가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함이 많아 보인다. 이번 제104회 정기 중앙종회가 보여준 파행에 가까운 행태는 앞으로 오랜 세월이 흘러도 승단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학습을 지속하는 노력 없이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부연하자면 종회 구성원 선출부터 법납 위주 또는 종무원 할당으로 만 할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일정한 덕행을 겸비하면서 학력과 경력을 갖춘 승가를 중심으로 그 인원수를 대폭으로 증가해야 한다. 중앙종회 의원으로 선출된 후에도 일정기간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을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승단의 부단한 자기계발프로그램을 만들어 전통 불교수행과 신학문의 학습을 겸비하는 선구자적 성직자로 거듭나야 한다. 일찍이 모 종단에서도 중앙종회 도중에 갑자기 위험한 미물투척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그때 그 스님의 행위는 잘못됐지만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은 한마디로 불교계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이다.

이번 중앙종회의 파행을 보면서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역할도 못하면서 그 직책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죄송하고, 종단의 백년대계에 큰 장애를 가져온 것인지 각자가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스스로 그에 따른 책임도 질줄 아는 현명한 판단이 무엇인가 묻고 싶다. 태고종도는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동안 손가락질 했거나 불협화음을 일으켰던 것은 선가귀감의 수원수구(誰怨誰咎)의 뜻을 다시 새기는 계기로 삼아 서로 수용하며, 용서하고 대화합해야 할 것이다.

오늘 이 시점에서 한국불교의 새벽을 외쳤던 원효 성사의 무애자재와 제종포섭을 하신 태고 국사의 원융사상 및 불교유신을 주창했던 만해 선사의 자주독립과 애민애족정신이 그립다.

사 설

조계종의 자주화 선언을 지지한다

조계종이 정부·여당의 2011년도 예산안 날치기 통과와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을 계기로 일대 쇄신을 선언했다. 한마디로 자주화 선언이다. 원로회의에서도 "정법으로 삿됨을 뚫고 정진하라"는 유시를 내렸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 인사말을 통해 "문화재 보호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다 보니 신도들의 십시일반에 기반한 불사와 신도교육은 소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쉽게 예산에 의존하다보니 정부와 지자체에 아쉬운 자세, 부탁하는 자세로 살아왔다.… 불교가 세상과 같이 했는가는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쉬움과 불이익을 감내하고서라도 변화해야 한다. 개인과 특정 본말사의 이익이 아니라 종단 이익을 위해 긴 호흡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종단사의 전환점으로 기록될만한 선언이다.

본사주지스님들도 결의문을 통해 자주화 실행 의지를 확인하고 "민족문화를 외면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유린한 이명박정부 및 한나라당을 규탄함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 민족문화의 보존, 전승 및 발전에 필요한 자구적인 노력을 국민과 함께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하고 5개 항을 결의했다. ▷우리는 정교분리의 원칙하에 종교적 사명과 사회적 역할 증진을 위해 전력한다 ▷이명박정부 및 한나라당 인사들과 개별 접촉하지 않을 것이며, 사찰 출입을 거부한다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의 정신을 저버린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 ▷불교의 자주권과 자율권을 규제하는 각종 국가 법률을 반대한다 ▷수행, 교육 및 포교 등 종교본연의 활동과 민족문화 보전에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조계종의 자주화 행보를 적극 지지한다. 아울러 이에 따른 후속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현해나가기를 기대한다.

정부·여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고도 안하무인이다. 법정기일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하지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최근에는 연말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독거노인 집을 방문하면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내년에는 선거가 없고, 연말연시와 추위 속에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잦아들 것으로 계산했다면 오산이다. 지난 4월 지자체선거에서 국민들은 천안함 정국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여지없이 부숴뜨리지 않았는가.

이명박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 이번에도 법정 기일 준수를 내세워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는 법치를 가장해 법을 우롱하는 처사다. 야당의 반대의사를 표시할 권리조차 빼앗은 반민주 퇴행이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왜 여론의 비난을 받을 날치기 통과를 했는지 그 의도를 알지 못한다. 날치기 이후의 정부·여당의 행동을 보면 국민들은 그저 구경만하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법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외면한데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과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10. 12.18(토) 오후 1시 부터 ~ 12.19(일) 오후 6시 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 (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 (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 (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국·전·통·따·주·기·공·덕·회

화제의 신간
선(禪)이란 무엇인가?
카르마의 소멸
● 맑은 기가 나오는 책 ●
이보다 더 진솔한 禪의 체험은 없다.
불교의 종지는 無我요, 보살의 종착도 無我다.
禪은 목적이 없다. 목적이 없는 것이 목표다.
깨달음을 얻을려면
분별심을 버려야한다.
악(惡)도 버리고 선(善)도 버려라.
사람들이 선(善)을 취하고 악(惡)을 버리고
공(空)을 관하고 정(定)에 들어가면
그것들이 올바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인위(人爲)의 조작에 속하는 것으로
무위(無爲)법과는 거리가 멀다
- 마조선사 -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312쪽 / 정가 15,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명당 찾기의 참된 길잡이
한국의 재혈풍수 (上권·下권)
실존의 명당, 재혈에 의해서만 그 실체가 밝혀진다!
● 재혈이란, 서기어린 땅의 생기가 감돌아 서리는 명당터를 정확히 짚어서 찾아내는 일이다.
많은 사람은 '한국의 재혈풍수'를 왜 주목하는가! 처음 시도된 한 분야의 전문적 질문에 응하는 답은?
지금 바로 펼쳐보십시오.
上권 高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76쪽 / 정가 30,000원
下권 高田 鄭日均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512쪽 / 정가 30,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이게 풍수다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육표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